



# 종교역사 학자-산스크리트어 학자-베다 전문가 주장 “최초문명은 고대인도서 시작”

제목부터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이 나왔다. 종교역사학자 게오르그 포이어스틴, 산스크리트어학자 수바쉬 라, 베다 전문가 데이비드 프롤리가 공동으로 쓴 <최초의 문명은 고대 인도에서 시작되었다>(사군자)는 고대 인도에서 최초의 문명 발생지임을 증명해 나간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메르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사실을 뒤엎는 것이다. 우선 세 명의 글쓴이들은 고고학적 증거와 문헌들을 토대로 인도문명의 연대기를 수천년 끌어올린다. 기원전 1900년경 인더스강 유역을 초토화시킨 홍수로 초기 인도문명의 대부분이 땅속에 묻혔다는 것이다. 지질학적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대규모 지각변동으로 강줄기가 바뀌어 버렸고, 삶의 기반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북인도 동부 갠지스강 유역으로 이동하면서 역사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 근거다.

최근 발견된 파키스탄 지역의 머가르 유적이 히라와 유적이나 모헨조다로보다 훨씬 앞선 기원전 6500년쯤에 건립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곳에는 아리안 족이 기원전 2000년대에 인도를 침입하면서 가져왔다는 소와 양, 염소, 물소까지도 이미 사육한 것은 물론 기원전 5000년대에 기르거나 숨을 얻기 위해 목화를

재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는 이곳에서 운이 나는 산화철 도자기도 발견됐다고 한다. 또한 기원전 6000년경의 천체 모습은 담고 있는 문헌들을 통해 최초의 문명이 인도였음을 주장한다.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7000년 이전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리그베다의 경우 기원전 6000~7000년의 상동지리 시대에 해당하는 별자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에 소개된 이야기 하나. 베다에서 중요한 숫자로 나타나는 108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태양의 직경으로 나눈 값이라는 것. 힌두인들이 사용하는 염주알이 108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염주를 한바퀴 돌리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의 상징적인 여행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숫자인 339는 이 숫자에 원주율을 곱한 값이다. 이는 제단을 설계하기 위한 실제적 용도에서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이 책은 베다에 숨겨져 있는 수학적 암호와 천문학적 암호를 밝혀내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들은 지금까지 문명의 기원으로 알려진 수메르 문명이 인도문명의 영향권 안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고대 역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메르를 문명의 발상지로 간주하는 교과서적인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고고학, 지질학, 언어학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고대 인도가 문명의 발상지라고 주장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학문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 새로운 책

▲만해 한용운 논설집(만해사상선언회 엮음, 장승)=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을 비롯 불교관련 논설과 <조선독립의 서> 등 유교논설을 집성한 책. 세계사의 변화에 대비 불교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불교유신론'은 승려교육·도심교교·대중불교 등의 중요성을 설교하고 있다. 이러한 스님의 '불교개혁론'은 오늘날에도 되새겨 볼만하다 이밖에도 선교일치, 호국불교, 보살관 등에 대한 불교·유교논설 24편은 그 시대의 정신을 살피는 데 도움을 준다. 값 1만원

▲화엄사(글=정병삼·김봉렬·소재구, 사진 손재석)= 대원사 '빛깔 있는 책들' 시리즈 불교문화권 45번째 권. 1천년 화엄의 성지 구례 화엄사의 역사와 건축 그리고 유물들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도드라진 특징은 읽는 것과 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짧은 글과 사진이 조화롭게 구성된 이 책은, 답사길잡이로도 활용할 만하다. 값 4천8백원

▲불교상담(방기연 지음, 조계종출판사)= 서구 상담이론의 중요한 흐름인 정신분석, 행동수정, 인간중심 그리고 인지적 접근들을 살펴보고 불교상담의 의미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장에서는 불교상담이 무엇인지를, 2장에서는 1장에서 정한 불교상담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담자의 자세와 상담방법들을 다루고 있다. 3장에서는 불교 교리를 실천 관점에서 간추렸고, 4장에서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불교상담으로 다루어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값 1만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황석영 지음, 이룸)= 작가 황석영 씨의 북한 방문기. 지난 89년 북한을 방문하면서 보고 느끼고 반성했던 마음을 적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만 했던 우리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핏발을 현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감동으로 다가온다. 방북 후 독일 미국 등지에서 체류해 왔던 황석영 씨가 여러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도 실고 있다. 값 8천9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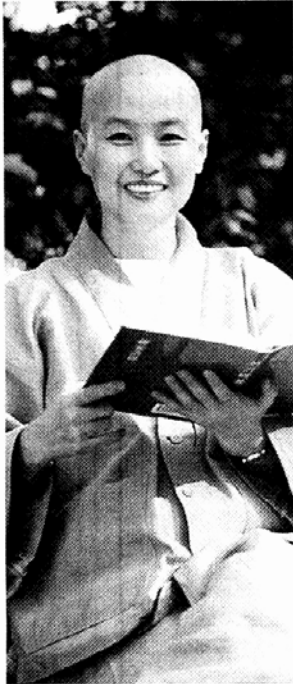
▲불꽃 속의 명상(민성 스님 지음, 초흥)= 묘지문화는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매장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들을 영혼의 세계와 우주의 이치, 인과법칙에 따라 설명한다. 특히 이 책에서 주목할 것은 매장장과 화장의 특과 실을 비롯 매장의 열 가지 나쁜 점과 화장의 열 가지 이익, 천도를 해야 하는 이유 등이다. 값 7천5백원

## “어록공부는 선가 필수”

### 책과 사람

#### ‘선가어록’ 낸 혜원스님

초기 선어록 어떻게 읽어야 하나. 보통의 불자들에게는 간단치 않은 질문이다. 하지만 혜원 스님(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의 대답은 명쾌하다. “철저히 당·송시대의 문화와 관습, 생활 등을 토대로한 구어적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선종 특유의 정신이 배어 있는 직설적 어법이 대부분인 초기 선문헌을 문어체에 의지한 현대적 해석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난 96년 번역한 <선어록 읽는 방법>(운주사)에 어록을 읽기 위한 한문법을 덧붙이기도 했다. 선어록을 한문원전으로 읽기 위한 문법을 참언해 <선어록 바로 읽기(?)>에 남다른 원력을 세우고 있는 혜원 스님의 정결사로 <선가어록 1>(운주사, 값 1만원)을 내놓았다. 이 책은 ‘절관론’ ‘수심요론’ ‘관심론’ ‘조계대사전’ 등 4편의 초기 선문헌 해설집이지만 어록공부를 위한 가이드북으로도 손색이 없다. 지난 98년부터 2년여 동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학과 경전연구 강좌(선전연습)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스님은 언어학적 연구 없이 선어록을 음독하는 것은 선장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어록의 한문을 문법적으로 읽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책에 무게를 두는 것도 이런 초기 선문헌의 언어학적 접근이 중국선종사 연구의 선결 과제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또 이러한 선어록 강독은 선가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총림마다 선어록 연구소를 개설하고, 산찰에는 큰스님을 모시고 수행을 점검 받을 수 있는 법회가 상설돼야 한다는 것. 이러한 불교계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릇된 선어록 해설집이 난무, 독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결국 불교계가 선어록 강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선불교가 제대로 정립된다는 말이다. 스님이 초기 선문헌 강독에 특별한 애정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선어록을 읽는 것도 독선(讀禪)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문자를 읽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보면 그 내용이 체화되어 문자를 끌리면서 ‘불입문자(不立文字)’ 교의별전(敎外別傳)의 소식을 알게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스님은 선전강독에서 학생들에게 학문적 능력과 함께 신심을 강조한다. 스님은 최근 배후가 규봉종림에게 선사상에 대하여 문답한 내용을 담은 <배후사유문>을 강독하고 있다. 선어록의 기존 해석법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도하는 선어록 강독은 시리즈로 계속 출간될 예정이다. 김중근 기자

## 왜 고기 먹지말라 했나

### 인광스님 ‘단박에 윤회를 끊는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그 이유를 실력 있게 밝히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중국 인광 스님의 법문집 <단박에 윤회를 끊는 방법>(불광)은 일상에 법문의 초점을 맞춰 계율을 생활화하게 이끈다. 육도윤회와 인과응보 등 교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우리의 생활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마치 옆에 앉아 얘기를 듣는 듯한 서술방식으로 독자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고기 먹는 것에 대한 스님의 법문을 살펴보자. 스님은 단호하게 ‘과역무도’라고 말한다. 불법의 이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중생이 과거에 우리

부모였고, 미래에 부처가 될 것임을 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 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람이나 동물은 모두 똑같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을 받았고, 영혼과 심성을 갖고 같은 천지 사이에 살고 있다. 다만 전생의 죄업과 복덕으로 인해 다른 몸을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그 복덕이 다하고 죄업의 과보가 눈앞에 닥치면 다른 동물로 떨어지고, 마침내 사람들의 부림을 받다가 살육을 당할 줄 누가 알겠느냐고 묻는다. 이러한 법문의 요지는 채식은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채식이 지계와 자비수행의 밑바탕이라는 것. 보전위생학적인 이유로 빠뜨리

지 않는다. 고기를 먹으면 발육성장은 빠른 게 사실이지만, 그만큼 일찍 노쇠해지고 질병에 걸리는 취약 체질의 화근이 되기도 한다. 현대인이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걸 보면 안다. 반면 채식은 하면 기혈이 맑아지고 정신도 또렷해지며 자양분도 풍부해 건강장수하고 잘 늙지 않게 된다. 심상같은 이야기 속에 불법의 심오한 이치가 담겨져 있음을 알게 해준다. 얇고 실천을 하나로 만드는 힘을 지닌 책이다. 값 5천원. 권형진 기자 (jinny@buddhopia.com)

### 게리 스나이더 ‘야생의 삶’

###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명상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되는 짐작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 인간은 자연의 본성인 야생을 회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공동체의 서식처인 자연 전체를 우리의 탄생지이고 집이며 무덤으로서 경건하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생명을 지상의 모든 생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플리처상 수상 시인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반문화주의자인 게리 스나이더(70). 그가 캘리포니아의 원시적 자연에 몸을 담고 야생의 삶

을 살아가며 펼쳐 보이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명상 에세이집 <야생의 삶>(동쪽나라, 이상화 옮김)이 우리말로 출간됐다. 이 책은 자연과 야생 그리고 야생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에서 태어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야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은 약하고 자연은 선하다는 서양철학 특유의 맹목적인 이분법적 구분을 포기한다. 대신 모든 살아있는 생명 속에 본래 깃들여 있는 아름다움을

볼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 냈다는 오만을 버리고,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연이 들려주는 노래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이 들려주는 노래에 귀 기울일 때,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은 구체적 인 형태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능성이 바로 야생의 삶이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다. 이러한 글쓴이의 사상적 바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덧없으며 끝없이 변화한다는 불교의 세계관과 일치한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선방일기            | 지 허       | 여시아문   |
| 2  | 삼천사찰요법          | 박 남 희     | 정신세계사  |
| 3  |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 현 각       | 열림원    |
| 4  | 불교란 무엇인가        | 최 봉 수     | 부디스트닷컴 |
| 5  |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 달라이 라마    | 문 이 당  |
| 6  |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 일 타       | 불교시대사  |
| 7  | 전통사찰음식          | 적 문 우 리   |        |
| 8  | 전생가기 참 쉽다       | 설 기 문 도 립 |        |
| 9  | 영가천도            | 우 룡 효 립   |        |
| 10 |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 틱 남 한     | 지혜의 나무 |

도서 안내: (02)737-0695

명의 허준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 TV 동의보감

KBS-2 TV 전국은 지금에 방영된 <동의보감>의 내용 소개 동양 최고의 자랑하는 명의(名醫) 허준(許浚) 선생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가정의학 필독서이다. KBS-2 TV (전국은 지금)을 통해 300회 넘게 전국에 방영 소개된 내용을 프로그램 연출자였던 저자가 한 권으로 엮었다. 또한 기타 종합한방의사의 비방도 수록했다. 각종 질환별로 나누어 상세한 치료법이 담겨 있다.



정인형 엮음 / A5신 / 334면 / 10,000원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한

# 한국사찰음식

우리나라 최초로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한 요리법과 사진 수록 깊은 산중 절에서나 맛볼 수 있는 사찰음식을 가정의 식탁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소개한 최초의 책으로 솔향 풍기는 사찰음식의 상세한 요리법과 맛갈스러운 컬러 요리사진을 수록했다.

명산 고찰의 유명한 사찰음식 총망라

유서깊은 산사에 전하는 독특하고 유명한 사찰음식을 총망라했다.



김연식 지음 / 4 9면형 / 윌리터 / 156면 / 13,000원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 전통사찰음식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문 스님의

## 4인 기준 요리법

적문 지음 / 4 6면형 / 윌리터 / 176면 / 13,000원



과도한 육식과 기호식품에 탐닉한 나머지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오신채(마늘, 파, 달래, 부추, 홍기)를 넣지 않은 담백하고 경쾌하며 맛과 영양이 우수한 사찰음식이 최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전통 사찰에서의 조리과정은 일반인들이 그대로 따라하기에 다소 어렵고 생소하다. <전통사찰음식>은 옛부터 전승해 온 맛갈스러운 사찰음식을 사계절로 나누고, 4인 기준 정량을 표기하여 요리에 자신이 없는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하였다.

오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